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이계연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기업·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챙겨주는 서비스’로 잠재 요구 해결
착한기업·착한소비자 협의회 구성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중 정착하고 실질한 고객은 ‘착한 기업’으로 선정 SNS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를 발굴하고 50개 업체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올 해 최종적으로 ‘착한기업’ 300개, 금융기관, 소비단체 중 ‘착한소비자’ 200명을 선정해 ‘착한 기업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할 생각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1조원 달성에 대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많은 이용 덕분에 지난 7월 보증공급 1조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1조원 달성에 설립 후 2년반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는 도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설립돼 지난 11년간 6만여 업체에 1조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봉사단 박람회장 청소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여수엑스포 폐막식 이후 광주은행지사역시량봉사단 50여명과 함께 여수엑스포 일대를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한경연, 올 성장률 3.1% → 2.6%로 하향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한경연은 15일 ‘KERI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을 지난 5월 발표했던 3.2%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미국의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수출이 악화하는 점을 하향 조정의 이

유로 들었다. 고용이 둔화하는 데다 금리 인하 등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이 제약 받아 내수 여건 개선이 어려운 점도 꼽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물가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보다 0.5%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이 둔화하고 서비스 수지가 개선돼 기존 159억달

러에서 303억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 위기 완화 또는 재발 등 국면 변화에 따라 1.140원 전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3.3%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의 취약성,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 발생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오늘부터 전면파업

노사 최종교섭 결렬...지역경제 피해 우려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을 일시 중단한 채 사흘동안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25·26·27차 교섭을 잇따라 열어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사측은 집중교섭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을 증액한 수정안을 내놨다. 사측은 지난 5월 상여금의 125%(310만원) 일시금 지급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50%(4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 정년 2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도급사원 평균 임금 적용, 임금 관련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최종안으로 제

시했다. 다만, 쟁의행위 금지와 2010년 노사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 선언을 했다. 노조는 그동안 2010년 임금 반납분 회복 및 임금 13% 인상,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섭의 쟁점은 노사합의서 준수 여부였다.

사측은 워크아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 노사합의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상황을 반영해 임금 반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금 액수보다 워크아웃이라는

현실 인식의 차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6시 광주공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금호타이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한 달 여간 부분파업으로 생산 손실이 9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강연대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김강규 대표이사와 이광균 노조 지회장을 만나 ‘상생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노사 양측에 윈윈한 해결을 주문했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부실 6년만에 가장 높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고정이자여신비율)이 0.67%라고 15일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은 2006년 6월의 0.71% 이후 최고치다. 전체 가계대출 부실비율도 0.76%로 2006년 9월의 0.81% 이후 가장 높다.

이계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비율의 분자(부실채권 잔액)가 분모(대출 잔액)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부실비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27.3%(5000억원) 증가하고 대출잔액이 1.5%(4조6000억원) 증가해 부실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은 은행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 악영향을 줬다. <연합뉴스>

외국 명품업체 매출·순익 매년 급증
돈 대부분 본국 송금...기부 인색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외국 명품 업체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 번 돈 중 평균 40% 가량을 본국에 보냈다. 일부 업체는 순이익의 90% 가까이 송금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지난 6년 사이에 수천억원의 돈을 벌었지만, 국내에 기부를 위해 내놓은 돈은 10억 원에 불과해 한국 시장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다.

15일 재벌닷컴이 내놓은 ‘국내 매출 상위 10대 외국 명품업체 한국법인 경영현황(2006~2011회계연도)’을 살펴보면 이 기간 명품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0대 법인의

총 매출은 2006년 6489억원에서 작년 말 1조8517억원으로 2.9배로 늘었다. 당기 순이익의 증가 속도도 더 빨라 같은 기간 총 457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무려 4.1배로 증가했다. 이중 프라다는 2006년 271억원이던 매출이 작년 2513억원으로 9.3배, 당기순이익은 4500만원에서 532억원으로 무려 1182배나 폭증했다.

국내 명품 판매 1위 루이비통은 같은 기간 매출이 1213억원에서 4974억원으로 4.1배로 늘면서 순이익도 79억원에서 449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매출 2위 구찌도 같은 기간 매출이 1402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2.1배, 순이익은 56억원에서 237억원으로 4.2배 각각 불어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책임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명품 업체는 성장세나 인지도, 사업 규모 등에 걸맞지 않게 기부 실적 등 사회공헌 활동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 10개 업체의 배당금 총액은 2006년 12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607억원으로 무려 5배로 증가했다.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올린 누적 순이익 6923억원 가운데 누적 배당금으로 2688억원을 가져간 것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packages including flights, hotels, and sightseeing. Features '신비의 섬 제주 탐방' and '제주여행' with various package prices and details.